

전국민의 소방요원화 운동전개



이 관 석
(내무부 소방국장)

1. '86주요시책 회고

지난해는 우리가 30억 아시아인의 한마당 잔치인 “86아시아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예상 밖의 좋은 기록으로 아시아는 물론 전세계에 우리 민족의 저력을 과시함으로써 국민들 가슴마다 뿌듯한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준 감격의 한해였다.

또한 수출입국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60년대 이래 처음으로 무역수지면에서 수출흑자원년을 맞이하게 된 것은 고도산업사회로의 성장과정에서 대형화재 예방에 노력해 온 소방행정의 완벽한 뒷받침과 이에 따른 사회안정이 경제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지난 해의 소방지표는 “소방역량 선진화로 자위소방 정착”으로서 이를 기본시책으로 정하여 꾸준히 추진한 결과 소방력 보강면에서 광주직할시에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서울 동대문, 인천 남부, 안산, 여천에 4개 소방서와 16개파출소를 신설했으며, 소방차량 2백33대를 보강하고 소방인력 5백9명을 증원하는 등 소방력 보강에 힘썼다. 특히 2,000년대 소방행정의 중추적 인재를 길러낼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내무부 소방학교 직제를 확장하는 한편 서울소방교육대를 소방학교로 승격시키고 부산소방본부내 교육대를 증편하여 권역별 소방교육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한편 화재진압능력 향상면에서는 고가사다리차를 포함한 신예 소방차 9대를 추가 확보하고 공기호흡기, 무전기 등 개인 진압장구를 완전히 갖추었으며 특수장소에 대한 소방훈련을 강화하여 초기 화재진압태세에 만전을 기하여 왔다.

또한 대국민 소방홍보면에서도 전소방조직을 활용하여 국민에 대한 소방교육과 불조심 생활화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87년도에는 지난 해의 소방시책에 대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소방행정의 새로운 전진을 다짐하면서 국가 사회 발전과정에서 소방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소방안전체제로 국민생활 보호에 기여”를 기본시책으로 정하고 국민속의 소방상 구현, 소방안전태세의 정착, 대형화재 중점예방, 그리고 '88



올림픽 소방대책 추진에 역점을 두어 금년도 소방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87년도 주요 소방시책

가. 국민속의 소방상 구현

(1) 소방공무원 자질향상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칭송을 받는 소방행정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먼저 소방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더욱 힘쓰고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소방관의 긍지와 사명감을 깊이 일깨울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금년부터는 각급 소방학교에 교관단을 신설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내실과 전문성을 기하고, 장기대책으로 일반 전문대학에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설치하여 매년 120명 정도의 소방전문인력을 양성시켜 이들이 소방공무원으로 희망할 경우 특별채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방장학생을 확대 선발하는 등 우수 소방공무원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 위민 소방행정 구현

안으로는 소방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투철한 위민 봉사정신 자세로 무장시킬 것이며, 밖으로는 모든 소방행정 처리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찬사와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위민봉사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금년부터는 소방관서의 민원실 명칭을 위민실로 바꾸어 제반 소방

행정상의 고충을 상담하여 해결해주는 기능까지 전담시켜 운영할 계획이며, 간단한 신고민원은 연중 공휴일 없이 접수 처리토록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것이다.

또한 봉사하는 소방행정상을 국민에게 깊이 인식시키기 위하여 소방 구급업무를 활성화하여 시행하며, 재난에 대한 구조·구난활동까지 수행토록 하여 소방봉사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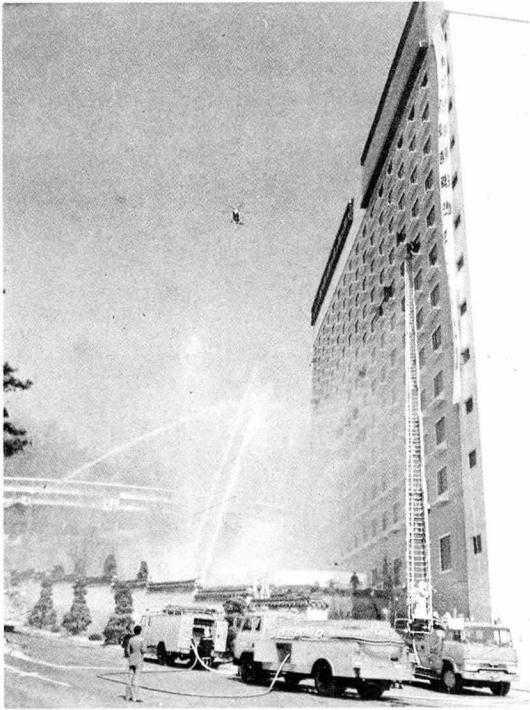
나. 소방안전태세의 정착

(1) 전국민의 소방요원화 운동 전개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사용하기 시작한 불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될 긴요한 것이지만 불을잘못 사용하고 관리를 소홀히 해서 매년 고귀한 인명과 수많은 재산을 불태워 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간접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올해에는 전국민의 소방요원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국민에 대한 소방인식을 일신시키고자 한다.

첫째, 가정마다 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하되 우선 가정에 적합한 소화기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소화기는 누구나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에 대한 계몽도 강화할 방침이며,

둘째, 어린이 소방안전교실을 일선 소방서별로 설치하여 유치원, 국민학생 등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요령을 터득시켜 어



릴때부터 소방에 대한 인식을 생활화시켜 나갈 것이다.

세째, 국민에 대한 소방교육방법을 개선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직장단체와 노인, 여성교실 등 각종 집회를 대상으로 주민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든지 소방관이 현지출장하여 교육토록하고 각종 마스크와 반상회 등을 활용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계획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11월 한달동안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설정, 동절기 화재에 대비한 집중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2) 소방안전체제의 강화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화재의 양상과 소방행정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소방안전체제도 강화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도 전국 4개 소방서(서울 도봉, 구리, 삼척, 대천)와 13개 파출소를 신설하고 3백15대의 신예 소방장비를 확보할 것이며, 대도시에 소방용수시설 2천66개소를 보강하여 소방안전체제를 다지고 빈틈없는 소방대책으로 국민생활보호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

다. 대형화재 중점예방

(1) 자위소방체제 확립

주요 화재취약 대상업소에는 자위소방조직을 재정비 보강하고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매월 소방훈련

시 중점 지도할 것이며, 대형시설의 소방설비에 대하여는 예년과 같이 자체 점검보고제를 확행하여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출입하는 시장·호텔·병원 등 주요 소방대상에 대하여는 청원소방원을 정예화시켜 배치하고 소방관서와 합동 소방훈련을 연1회이상 실시하여 자체 진압능력을 극대화시킬 것이다.

(2) 특수화재 소방대책 강화

화재진압이 곤란한 지하철, 지하상가 및 대량 위험물제조소 등의 화재 또는 기타 사회안정을 해치는 특수화재에 대한 소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들 화재취약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여 특별관리하되, 평소 자체 소방대의 소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화약제를 보강하고 소방조직을 내실화하여 특수화재 진압기술을 더욱 연마시키는 한편, 자체 소방시설을 완벽하게 관리하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다.

(3) 초동진압능력 배양

모든 화재의 초기진압 성패는 화재발생으로부터 5분이내에 달려있다. 화재조기신고, 신고와 동시 신속출동, 출동중 상황파악으로 화재에 대한 긴급조치 등이 초기진압의 성패를 좌우하는 상황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화재출동 및 신속조치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소방무선망을 더욱 확대 보강할 것이며, 또한 화재현장에서 소방관 필수장구인 공기호흡기 및 절단기 등 파괴장구도 전진압대원이 개인장구화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해 나갈 것이며, 나아가 소방장비 조법의 개선 발전과 소방진압 기법을 개발하여 어떠한 화재상황하에서도 신속히 진압할 수 있는 사전 준비태세를 갖추어 나갈 것이다.

라. '88올림픽 소방대책 추진

'88서울올림픽대회를 대비하여 소방안전대책을 수립,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올림픽시설 지역의 소방력을 보강하고, 경기장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소방점검을 실시하여 제반 방화시설을 완벽히 갖추도록 지도할 것이며, 특히 금년부터는 중앙과 시·도에 올림픽 소방안전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소방안전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